

鬼面과 막새瓦 數例

鄭 永 鎬

古代 伽藍址에서 塔婆와 佛像이 發見 調査됨은 그 原位置가 確實하므로 더 한층 意義가 있다고 하겠는데 이에 못지않게 重要한 比重을 차지하는 遺物은 寺址地表에서 蒐集되거나 혹은 地下에서 出土되는 瓦·磚類라고 하겠다.

오늘날 비록 羅·麗代의 木造建築物이 남아있지 않으나 當代의 堂宇를 짐작할 수 있게 하는 것은 礎石(柱礎石) 外에 瓦片뿐인 것이다. 古瓦片들은 古代 木造建物 各部分의 構造를 잘 짐작케 하며 더우기 막새瓦의 表面에는 各種紋樣을 彫飾하였으므로 當代의 特徵的이고도 優秀한 美術과 工藝를 알 수 있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方面 同學들은 寺址를 踏査할 때면 耕作地나 周邊雜草속에서 한 조각의 古瓦片이라도 採集하려고 血眼이 되는 것이다.

여기에 寫眞과 더불어 簡單히 紹介하려는 鬼面과 막새瓦 數例는 모두 그 出土地가 確實하여 所屬 寺院에 對한 研究上 注目할만한 새 資料라 하겠다.

1. 蔚山 大谷里 寺址出土 鬼面瓦

慶北 蔚山郡 彥陽面 大谷里 逸名寺址에서 出土된 鬼面瓦이다 이곳은 蔚山市에서 彥陽行 버스로 10km地點 泗淵里에서 下車하여 大谷里行 小路로 約 6km 步行하면 大谷國民學校이며 다시 峽谷의 溪流를 따라 2km쯤 올라가면 彥陽面 大谷里 盤龜臺인데 俗稱 圃隱臺라고도 한다¹⁾. 이곳 언덕一帶가 옛날 절터로서 현재는 孫晉龍氏 住宅(大谷里 890番地)을 비롯하여 民家 數戶가 있다. 寺址에는 半壞된 石築위에 石佛坐像 一軀와 石塔材, 柱礎石²⁾ 등이 殘存하였었는데 最近에 이들 遺物을 釜山大學校 博物館 前庭에 移安하였다.

鬼面瓦는 이곳 廢寺址에서 出土되었는바 上端部에 약간의 傷痕이 있을뿐 完形이다.

형태는 上部만이 緩曲된 長方形의 通式을 따랐다. 灰青色 으로서 幅 3cm의 周緣에는 圓圈內를 十字로 四等分하여 그 中心과 四分圓內에 各 一點式의 珠紋을 彫刻한 彫飾을 左右側에 五座式 配置하고 上部에는 三座를 裝飾하였다.

內面에는 全面 各處히 面部를 高彫하였으며 兩眼과 口唇의 주변에는 圖樣的인 火焰文이 조각되었



圖 1. 蔚山 大谷里 寺址出土 鬼面瓦

1) 이곳은 高麗末 禰王 元年(1375 A. D.)에 圃隱 鄭夢周가 流配되었던 곳으로(高麗史 117, 列傳 卷第39 參照) 현재 그 자리에는 圃隱臺永慕碑(崇禎後五庚寅九月初九日)와 磻溪書院遺墟碑(光武五年辛丑)의 石碑 二座가 遺存한다.

2) 抽稿: 「彥陽 大谷里寺址의 調査」 考古美術 第三卷 第九號 通卷第 26(考古美術同人會 發行 1962年 9月, 서울)

다. 특히 입은 크게 벌리어 齒·舌이 뚜렷이 露出되었다. 이마에는 큼직한 連珠紋과 花葉紋이 裝飾되었고 兩眼사이에는 이 鬼面瓦를 固定시켰던 小圓孔이 있다.(徑 1.1cm)

크기는(cm) 長 20, 上幅 19.5, 下幅 21, 厚 3 인데 兩眼部와 口唇等이 寫實的으로 表現되기는 하였으나 彫刻手法이 弱화되고 圖樣化된 점으로 보아 造成年代는 新羅下代로 推定된다.

2. 襄陽 五色里出土 鬼面과 막새瓦

江原道 襄陽郡 西面 五色里 逸名寺址에서 出土된 瓦當들이다.

이곳은 襄陽 邑內에서 約 20km되는 五色里까지 버스를 利用할 수 있고 終點에서 西쪽으로 溪流를 따라 3km쯤 올라가면 溪谷 北岸에 위치한 廢寺址인데 이 寺址에는 長大한 石築위에 많은 遺蹟遺物이 殘存하여 注目을 끈다.

即 法堂址로 추측되는 臺地에는 圓座가 模刻된 柱礎石이 整然하게 配置되었고 前庭에는 二基의 石塔이 東西로 建造되었는데(모두 倒壞되었음) 東쪽 石塔은 高麗時代作이며 西쪽의 三層石塔은 羅代의 所作으로 推定된다. 그리하여 이 西쪽의 石塔은 현재 寶物 第497號로 指定 保護되고 있는바 이 前庭에 石獅子像이 遺存하고 있어 또한 注目되고 있다. 이곳 寺址와 石塔을 비롯한 諸遺蹟 遺物에 대하여는 다른 기회에 소개될 것이므로 略하고 여기에는 法堂址周邊에서 수습된 瓦當만을 간단히 알리고자 한다

(1) 鬼面瓦(圖 2)

左側 下端部가 破損되었을뿐 完形에 가까운데 破失된 部分도 右側便의 完形을 따라 完全 復原이 可能한 것이다.

형태는 上部만이 緩曲되고 左右側은 直線形으로 下端部에 이르러는 약간 넓어졌는데 左右側 下端으로부터 口唇半部에 이르기까지 半圓을 그리면서 도려내고 있다. 이러한 形式의 鬼面은 慶州의 各寺址에서도 흔히 出土되는 것으로서 결코 特異한 형태는 아니다.

灰青色으로서 幅 3.4cm의 周緣에는 二重의 圓座紋을 돌렸는데 左右側에 六座를 配置하고 上에는 四座를 彫飾하였다.

內面에는 全面에 가득히 鬼面을 高彫하였는데 兩眼은 부리부리하여 큼직한 鼻部와 잘 어울린다. 兩眉와 口唇·上緣에는 火焰紋이 淺刻되었으며 그 形式도 圖式的이다.

이마에는 큼직한 圖孔이 있어(徑 1.7cm) 이 鬼面瓦를 固定시켰었다.

크기는(cm) 長 22.5, 上幅 19, 下幅 23.5, 厚 3 인데 兩眼과 鼻樑等이 寫實的이기는 하나 各部에 退化의인 手法이 역역하므로 年代는 新羅下代로 推定코자 한다.

(2) 솟막새瓦

솟막새瓦는 2點인데 同一한 형태이다. 周緣에 連珠紋이 돌려졌고 內面 中心에는 蓮子가 있는 작은 子房이 陽刻되었는데 蓮子는 中心部 外에 모두 8顆이다. 이 子房을 中心하여 周邊에 8瓣의 蓮華紋이 彫刻되었는데 複葉과 單葉이 各 四瓣式 交互로 配置되었으며 各 瓣內에 細長한 舌形이 彫飾되어 있



圖 2. 襄陽 五色里 寺址出土 鬼面瓦

다.

크기는(cm) 全徑 15~16, 子房徑 3.5 厚 2.5, 蓮瓣長 4~4.2이다.

蓮華紋 彫飾에 있어서 單葉과 複葉을 混合하여 使用하고 있음은 新羅下代인 九世紀頃부터의 傾向으로 推定³⁾되고 있는 바인데 이러한 形式의 甍막새瓦는 같은 地域內的 遺蹟地인 束草市 雪岳洞 香城寺址에서도 蒐集 調査된 바가 있다⁴⁾. 이러한 점에서 이 瓦當의 造成時期는 新羅下代로부터 高麗初期로 推定되는데 이곳의 現在 石塔이나 石獅子等 諸 石造物이 羅麗代에 걸쳐 建造된 것으로 推측되는 점과도 부합된다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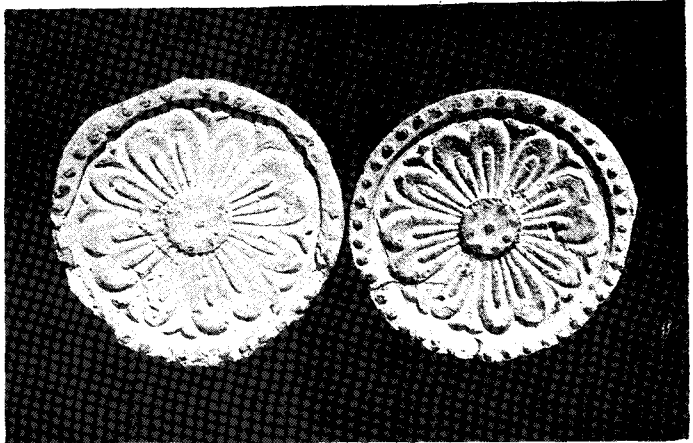


圖 3. 襄陽 五色里 寺址 出土 甍막새瓦

(3) 암막새瓦

암막새瓦는 半破된 一片인데 多幸이 中心部가 남아 있어서 原形은 알수 있다. 復原 全長 33cm 幅 7cm 厚 2.4cm 로 灰青色인데 周緣에는 連珠紋이 彫飾되어 있다. 內面에는 寶相華紋이 彫刻되었는데 그 手法은 細長, 太彫한 各部가 流麗하다. 그러나 技法이 세련되지 못하고 弱화된 感을 주고 있음에서 年代는 新羅下代로 부터 高麗時代 初期로 짐작하는 것이 좋을것 같다.



圖 4. 襄陽 五色里寺址 出土 암막새瓦

以上 數點의 瓦類는 전혀 事蹟이 밝혀지지 않은 廢寺址에서 出土된 것들이므로 앞으로 研究의 貴重한 資料가 되겠기에 簡略히 소개하였다. 이 遺品은 모두 檀國大學校 博物館에 收藏되었음을 밝힌다.

(4月 30日 漢南一隅에서)

3) 金和英 : 「統一新羅時代 蓮華紋研究」 梨大史苑 第七輯(梨大史學會刊 1968年, 서울)

4) 拙稿 : 「香城寺址 三層石塔」 史學研究 第21號(韓國史學會刊 1969年 9月, 서울)

消 息

1. 協 會

第 9 回 韓國大學博物館協會 總會

1. 日 時 1969年 5月 20日
2. 場 所 釜山大學校博物館
3. 出席校 建國大, 慶北大, 高麗大, 檀國大, 東國大, 東亞大, 釜山大, 崇實大, 延世大, 嶺南大, 圓光大, 陸士梨花大, 全南大, 忠南大 以上 15校
4. 討議事項
 - (1) 第 8 回 聯合展示會를 崇實大學博物館에서 연다.
 - (2) 任員 滿期로 改選한다. 改選된 任員은 다음과 같다.
會 長 校 崇實大(新)
副會長校 嶺南大(新), 全南大(新)
幹 事 校 建國大(留), 高麗大(新), 東國大(留), 延世大(留), 梨花大(留).
監 事 校 慶北大(留)
 - (3) 協會校 會費를 14,000원(獨立된 博物館 建物を 갖인 大學)과 7,000(其他 大學)으로 引上하고 1970年度부터 適用한다.
 - (4) 「古文化」販賣價格은 900원으로 하고 다음 機關에 寄贈한다.
 - 1) 會員校博物館, 筆者 各5部
 - 2) 其他大學博物館, 各大學圖書館, 其他圖書館, 調查室이 있는 各 言論·報道機關, 各人文科學系 研究室 各1部
 - (5) 「古文化」에 每回 1校式 大學博物館을 紹介한다.

幹事會(拔)

1. 日 時 1969. 12. 20
2. 場 所 서울 金良善會長宅
3. 參席校 建國大, 慶北大, 高麗大, 東國大, 崇實大, 延世大, 嶺南大, 梨花大, 全南大, 弘益大.
4. 討議事項
 - ① 弘益大學의 本協會 加入을 滿場一致로 可決
 - ② 「古文化」의 規模는 40面을 基準으로 하고 活字는 9p를 使用한다.
 - ③ 中華民國 台灣 故宮博物院主催 東洋繪畫심포지움 參席을 推進하고 推進委員으로 李弘植, 黃壽永, 孫寶基 各館長을 選定.

第 7 回 韓國大學博物館協會 聯合特別展

1. 期 間 1969年 5月 15일부터 20일까지
 2. 場 所 釜山大學校博物館
 3. 出品校 12校
 4. 出品點數 351種 651點
- 以外에 金三根, 閔龍植, 柳鐸一, 全鎮京, 鄭贊宇 諸氏의 贊助出品이 있었다.
또 5月 20日에는 同校 視聽覺講堂에서 다음과 같은 講演會가 있었다.
- (1) 金良善: 韓國古玉 및 古유리에 關하여
 - (2) 金延鶴: 伽耶史研究의 課題
 - (3) 孫寶基: 韓國舊石器時代 文化에 關하여

本協會 前會長李弘植博士逝去

1965年 1월부터 1940年 5월까지 高麗大學校 博物館長職을 맡고 계신 동안 1966年 3월부터는 本協會 會長校의 重任을 맡아 오시던 南雲 李弘植博士가 1970年 5年 18日 향년 61세로 逝去하셨다. 李弘植博士는 東京帝國大學에서 史學을 專攻하신 韓國古代史의 權威이시고 國立博物館 博物監 및 文化財委員會를 歷任하시었다. 더욱이 書誌學, 金石學을 비롯하여 考古學, 美術史學에도 조예가 깊어 항상 指導의 役割을 하셨고 多年間 本協會의 會長校로서 本協會 發展에 지대한 공헌을 한바 있다.



高麗大學校 博物館

◎ 서울 可樂洞 古墳發掘

同 博物館에서는 文化財管理局과 共同으로 1969年 8月 24일부터 9月 25日까지 1個月間에 걸쳐 서울特別市 城東區 可樂洞所在 百濟初期의 古墳 4基를 發掘調査하였다. 參加人員은 館長 李弘植教授를 비롯하여 高大 博物館에서 3名, 文化財管理局에서 4名, 모두 8名이었으며 出土遺物은 다음과 같다.

가장 注目된 것은 黑陶가 2點 出土된 것인데 1點은 完全하였으며 他 1點은 파손되었으나 完全 復原되었다. 그리고 單棺式의 甕棺 1點, 土器, 5點, 棺飾 卽치 10餘點, 蛋釘 8點, 鐵槍 1點, 鐵牟 1點, 鐵刀 1點 등이 出土되었다.

檀國大學校 博物館

◎ 尙州地區 古蹟調査

檀國大學校 博物館에서는 1969年度 古蹟調査 對象地를 慶北 尙州郡으로 定하고 3次에 걸친 調査가 鄭永鎬館長, 車文燮教授 指導下에 男女 學生 10명이 참가하여 이루어졌다. 조사된 蹟遺과 遺物은 다음과 같다.

1次 1월 19일~26일 8일간 : 南長寺의 木刻幀畫와 鐵佛坐像等, 觀音庵 木刻幀畫, 中穹庵 銅鏡과 佛像, 比長寺 事蹟記와 大型掛佛 및 三尊佛 幀畫, 諸建物址 木板刻等, 隣近 陶窯址, 草梧里 3層石塔, 蓮院里 石塔材, 龍湖里 3層石塔, 新鳳里 石佛立像, 上龍里 石佛立像, 甄萱山城의 望樓址와 石築 및 泉井, 芝沙里 模磚石塔, 伏龍里 幢竿支柱, 化達里 3層石塔, 傳沙伐王陵과 周邊의 諸碑石 및 城址, 邑內 南町洞 石塔材와 石造飛天像 2軀.

2次 8월 18일~24일 7일간 : 伏龍洞 石佛坐像(寶物 第119號), 咸昌鄉校, 曾村里 龍華寺, 恭儉池, 玉洞書院, 白華山 今突城址 推定, 興巖書院, 邑內 洛陽 水門碑, 邑內 石像 1軀, 尙州鄉校, 碑石거리의 諸石碑, 北長寺, 龍興寺, 甲長寺, 沙伐面 鄭起龍將軍 廟閣·諸文籍·山所와 神道碑, 化達里 3層石塔, 傳沙伐國王陵, 龍華殿, 外西面 愚伏鄭經世遺蹟, 蓮院里 逸名寺址, 尙州農業高等學校, 忠義壇, 冷村의 碑石거리, 顯忠壇

3次 9월 11일~16일 5일간 : 本 調査에서 특히 注目된 것은 牟東面 壽峯里에 위치한 白華山에서 「今突城」址를 發見한 일이다. 이 今突城은 三國史記에 보이는 巴 羅濟와의 관계 및 新羅의 百濟征伐 行軍要路와 當時의 歷史的인 諸問題를 研究하는데 귀중한 資料가 되리라 한다.

◎ 龍珠寺 遺物 調査

1968年 3月 9日과 16日 兩日에 걸쳐 京畿道 華城郡 松山里 龍珠寺의 石塔 2基, 銅鐘 2口, 各建物內의 壁畫, 父母恩重經(石經), 各建物址를 鄭永鎬館長 지도하에 實測 拓本하였다.

◎ 永同 寧國寺 遺蹟 調査

1969年 4月 19일부터 22日까지 4日間 館長 鄭永鎬教授 인솔하에 5名의 史學科 學生이 참가하여 忠北 永同郡 陽山面 樓橋里 智勒山 南麓에 위치한 寧國寺의 諸遺蹟 遺物을 조사하였다. 調査內容은 다음과 같다.

舊寺址(古代의 石築址와 圓座柱礎石 및 信枋石·長大石), 現寧國寺 大雄殿과 寮舍, 大雄殿 前庭 3層石塔(現高

3.2m의 新羅式一般型石塔 舊寺址에서 移建한 것). 望塔峰 3層石塔(望塔峰이라 俗稱하는 岩峰 위에 建造된 現高 3m의 高麗時代石塔), 圓覺國師碑(高麗 明宗 10年, 1180A.D.), 石造浮屠(現全高 1.76m의 八角圓堂型浮屠),

◎ 泗川 所谷里 石箱式古墳群 發掘調査

1967年度부터 실시한 慶南 泗川郡 一帶 先史時代의 遺蹟調査 계획에 따르는 마지막 調査로 1969年 8月 4일부터 8月 15일까지 12日間 泗川郡 正東面 所谷里 新月部落 耕作地에 위치하는 石箱式 古墳 12基를 發掘調査하였다.

이 發掘調査는 鄭永鎬館長의 지휘下에 車文燮教授, 申榮勳專門委員, 李昊榮大學生 外에 史學科生 男女 12名이 참가하였다. 今次 發掘한 12基中 7基는 파괴되어 下部構造단이 남아 있었으나 5基는 完全하였다. 즉 구조는 下部가 南方式 支石墓의 바탕으로서 長方形의 石箱 위에 넓은 板石을 얹은 다음 그 위로 3層段의 板石層을 쌓고 그 위에 또 하나의 넓은 板石을 얹고 있다. 대개의 石箱은 石箱을 중심으로 직경 4~6m의 圓을 그리면서 병풍처럼 높이 50cm정도로 板石을 연결시켜 둘러 놓았다. 各石箱에서는 赤色土器片이 無數히 出土되었고 磨製石器도 발견되었는데 간혹 紅陶片이 발견되어 注目을 끌었다.

◎ 特別展示會 開催

1969年 11月 3日 同校 開校 22周年 및 同博物館 開館 2周年 紀念日을 맞이하여 11月 7일까지 5日間에 걸쳐 博物館 特別展示場에서 가졌다.

展示에는 慶南 泗川郡 石箱式 古墳群 中 1基의 移置 復原, 出土遺物과 新收品 그리고 拓本과 石箱墳 發掘光景, 尙州地區 古蹟調査 狀況寫眞이 함께 公開되었다. 이밖에 「楊州탈」과 度量衡器等도 注目되었다.

◎ 「尙州地區古蹟調査報告書」刊行

館長 鄭永鎬教授의 著述로서 「博物館古蹟調査報告 第三冊」으로 11月 3日 刊行되었다. 四六倍版으로 總 300面이며 圖版 插圖 實測圖는 모두 96圖이다.

東國大學校 博物館

◎ 佛像 調査

1969年 1月 8일부터 19日까지 慶尙南道와 全羅北道 忠淸南道 일대의 國寶, 寶物級을 黃壽永館長과 文明大氏에 의하여 조사하였는데 이 地域에 散在한 非指定佛像들도 아울러 조사하였다.

昌寧 松峴洞 石佛, 觀龍寺 石佛, 昌原 佛谷寺 石佛, 삼정사 磨崖如來坐像, 咸安 大山里 石佛, 防禦山 石佛, 晉州 丹城 石佛, 咸陽 石佛, 居昌 陽平洞 石佛, 居昌 上洞 觀音菩薩立像, 迦葉寺址 石窟內 三尊佛, 農山里 石佛, 南原 禪源寺 鐵造如來坐像, 萬福宴址 石佛, 龍潭寺 石佛, 靈塔寺 金銅三尊佛 및 磨崖如來坐像, 德山石佛.

◎ 法光寺址 調査

同博物館에서는 慶北 迎日郡 神光面 上邑所在의 法光寺址를 1969年 5月 11일부터 5月 15일까지 5日間 調査하였는데 이 調査에는 博物館長 黃壽永教授의 主管아래 同博物館의 文明大氏와 洪思俊 申榮勳 金東賢 諸氏가 참가하였고 文化財委員인 趙明基, 李弘植教授도 參觀하였다.

이번 調査는 全寺址의 精確한 表面實測과 地表에 보이는 遺物調査에 重點을 두었다. 이 寺刹은 東向寺刹이며 金堂址 平面은 5間方形이며 四面의 階段址, 柱礎等이 비교적 잘 남아 있다.

金堂址의 中央에는 八稜形 蓮華 佛像台石이 있으나 佛像은 法堂 西側에 크게 파손된 채로 방치되고 있고 金堂址 西南쪽 언덕에 3層石塔이 있다. 金堂址의 中央을 西로 연장한 언덕에는 遺例가 많지 않은 雙頭 龜趺가 있다. 金堂址 前面(東쪽) 언덕 아래로 中門址, 幢竿支柱等이 남아 있다

延世大學校 博物館

◎ 石壯里遺蹟年代測定

1969年 7月 17日 公州 石壯里 第1地區의 表土下 약 4m되는 지층에서 出土한 寸(木炭)으로 放射性炭素 年代測定方法을 이용하여 原子力研究室에서 조사한 결과 30.690±3,000 B.P.를 얻었다.

◎ 公州石壯里遺蹟發掘

石壯里 舊石器 文化의 第七次 發掘이 博物館長 孫寶基 教授 指導로써 1970년 3월 28일부터 5월 27일까지 있었

다. 이번에는 爐址가 있는 後期 舊石器人의 住居址를 찾아내어 채취된 木炭으로 20,825±1,500B.P.(원자력 연구소)라는 방사성탄소 연대측정을 얻었다. 또한 돌에 새긴 조각품과 現生 人類의 머리카락, 동물의 털 등도 發見하여 當時의 生活相을 밝히는 좋은 단서를 얻었다.

◎ 「舊石器 時代」 出版

李隆助 研究員이 Movius, H.L. Jr.의 "Old World Prehistory: Paleolithic"을 譯註하여 延世大學校 博物館 研究資料 第一輯으로 出版하였다. 또 考古學關係 研究論文 中 아래와 같은 論文을 구하여 간행했다.

Lumley, Henry de, 1969. "A Paleolithic Camp at Nice," *Scientific American* Vol. 220, No.5, pp. 42-50.

Li, Chi, 1963, "黑陶文化存中國上古史中所佔的地位"《考古人類學刊》21. 22, pp. 10-11. (國立臺灣大學 English Summary)

Chang, Kwang-Chih, 1968 "Archeology of Ancient China," *Science* Vol. 162, No. 3853. pp. 519-26.

Hay, Richard L., 1963, "Reports: Stratigraphy of Beds I through IV. Olduvai Gorge, Tanganyika," *Science*, Vol. 139, No. 3557, pp. 829-33,

Braidwood, R.J., 1951, *Primitive Men*, 2nd ed. Chicago Natural Mus. Anthropology, 37, pp.113-6(Summary)

嶺南大學校 博物館

◎ 伽耶時代 遺蹟調查

同 博物館의 伽耶遺蹟 調查班은 金廷鶴館長과 洪淳昶教授 지휘로 1969年 11月 14日 慶南 昌寧郡 桂城面 桂南里 所在인 第4號 古墳의 發掘을 마치고 이미 盜掘되어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同 調查作業은 9月以來 실시되고 있는바 出土遺物은 土器 以外에 비취, 水晶, 玉 各 1個, 과대, 유리구슬 44개의 목걸이, 短劍 4개(크기 40~50cm) 도끼 6개, 창 1개, 馬具(자갈) 1벌, 金製 귀걸이 1개 등이라고 한다.

육군사관학교 군사박물관

◎ 1969년 3월 29일부터 第4回 李朝末 軍事關係 寫眞特別展示會를 개최하였다. 이 전시회는 韓獨修好條約當時 記念寫眞外 18點이 出品되었다.

◎ 다음과 같은 유물이 1969년 3월에 새로히 수장되었다.

(1) L-19정찰용 비행기 1대

(2) 북괴노획장비 50종 68점

(3) 월남노획장비 15종 19점

또 9월에는 駐越司令部에서 월남노획장비 44종 64點이 수집되었다.

◎ 1969년의 관람자수

외국인	장 병	학 생	일 반	공무원	계
1, 236	8, 552	44, 014	12, 056	2, 755	68, 613

梨花女子大學校 博物館

◎ 特別展

第83回 創立紀念行事로 北山 金秀哲作品 特別展示會를 1969년 5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1개월간 갖었다. 내용은 本博物館 소장의 山水, 花鳥圖 16點과 朴淳碩氏藏 「淸江曉渡」 李相璣氏藏 「牧丹圖」 崔樹貞氏藏 「閑日讀書」 등 모두 21點이다.

◎ 安東地區地表調查

1970년 1월 11일부터 18일까지 8일간 安東 및 義城지구 古蹟調查를 泰弘燮館長 지도하에 실시하였는데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義城塔里 五層石塔, 安東郡 豐山面 下里洞 三層石塔, 同三層模塼石塔, 磨崖洞 石佛坐像, 豐山面 竹田洞寺址와

三層石塔, 臨東面 蛟陽書院과 黃山寺, 臨河面 臨河洞 三層石塔 二基·石佛坐像 二軀·五層石塔, 琴韶洞 三層石塔과 石佛坐像, 禮安 鄉校, 西後面 鳴洞 石佛立像, 豊山面 幕谷洞 三層石塔, 義城郡 丹村面 觀德洞 三層石塔과 石佛坐像, 安東 西岳寺, 玉洞 三層石塔과 石佛坐像, 安寄洞 三層石塔과 石佛坐像, 新世洞 七層塔塔.

이어 1970년 3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安東地區 地表調査가 계속 실시하였는데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一直面 造塔洞 五層塔塔·松里洞 石佛坐像, 豊川面 道陽洞 石佛坐像·河回洞 豊川中學校 三層石塔·同 石塔材·申城洞 石塔材 및 石燈材, 北後面 石塔洞 方壇式石塔, 歸來亭, 伴鷗亭.

◎ 故 金活蘭理事長 遺品 引受

故 金活蘭博士 遺言에 의하여 평소애 수장하고 계시던 靑華白磁, 李朝白磁 등 李朝磁器類와 文房具類, 木工藝品 및 古書畵 등 古美術品 370여점이 1970년 3月初 本博物館으로 기증되었다.

弘益大學 美術館

本館의 特色은 韓國近代美術 100年間の 作品蒐集, 作家研究調査에 있는 만큼 다른 博物館에서 취급하지 않는 現代美術까지도 管掌한다. 本館의 主要 展示는 다음과 같다.

李朝白磁展 1970년 5월 4일~6월 15일

3. 古文化 뉴스

國立博物館

◎ 陳列品審議會

第1回 陳列品審議會가 1959年 4月 29일에 열렸다.

購入評價: 李貴肖像, 李時白肖像, 金在寬筆魚蟹花卉圖

埋藏文化財評價: 鐵製大碗口, 石製해태, 金銅阿彌陀如來立像, 金銅如來立像, 樓閣山水文銅鏡, 金銅菩薩立像, 靑華白磁墓誌, 金銅製誕生佛等.

第2回 審議會가 1969年 11月 11일에 열렸다.

購入評價: 靑磁碗 一括 9點, 靑銅淨瓶 一括 4點, 六朝 靑磁鷄口壺外 1點, 靑銅三脚香爐外 5點, 白磁 사발, 石 劍, 菱花板 一括, 尹重三 肖像外 5點, 龍頭幢竿 및 支柱, 鐵製佛頭.

埋藏文化財 評價: 京畿道 華城郡 동한년 석우리 出土 鳥銃, 六朝 靑磁四耳壺外 一括遺物, 靑銅藥師如來立像

◎ 海美 先史時代遺蹟 發掘調査

尹武炳學藝官을 비롯한 考古課의 金正基, 韓炳三 諸氏 一行은 1968年 春秋 2次 調査에 이어 1969年 5月 8일부터 5月 24일까지 17日間에 걸쳐 忠南 瑞山郡 海美面 休岩里 附近의 先史時代遺蹟 發掘調査를 실시하였다.

이번 調査는 第2次調査地域에 연달은 東南 丘陵部에서 실시되었으며 역시 竪穴住居址가 발견되었다. 竪穴住居址는 그 規模나 形態가 2次調査의 경우와 거의 같으며 完全한 住居址 두개와 重複된 住居 세계를 調査하게 되었고 좀 性格이 다른, 그리고 竪穴의 깊이가 매우 얇은 遺蹟 한개를 調査하였다. 이 調査에서는 完形 無文土器 以外에 많은 土器片과 石斧를 비롯한 石器類를 發見하였고 약간의 櫛文土器가 發見되었다.

◎ 釜山市 東三洞貝塚 發掘調査

서울大學校와 合同으로 1969年 8月 5일부터 9月 5일까지 1個月에 걸쳐 釜山市 影島區 東三洞 750의 2에 所在하는 貝塚을 發掘調査하였다.

이번 發掘은 同 貝塚에 대한 3個年 調査計劃事業의 第1次年度 事業으로 실시된 것이며 서울大學校의 金元龍 教授 主管으로 尹武炳學藝官을 비롯 金正基, 韓炳三, 金鍾徹, 任孝宰, 崔夢龍 諸氏가 參加하였고 따로 文化財管理局의 金秉模, 趙由典, 池健吉氏, 釜山大學校의 金龍基, 鄭澄元氏, 東亞大學校의 金東鎬氏等 이 參加하였다.

第1次年度에는 全包含層의 1/3發掘計劃을 세워 東西로 3×3平方m의 「뫼트」 8個를 뚫고 遺物은 주로 生土까지

의 貝層에서 出土되고 있는데 土器는 이 地方 特有的 所謂「釜山有文土器」, 「太線魚骨文土器」와 紅陶, 無文土器, 隆起文土器類, 完形角杯와 磨製, 打製, 半磨製의 石斧가 出土되었다.

◎ 佛敎繪畫 調査

全羅南北道의 各寺刹에 遺存하는 佛敎繪畫에 대한 調査가 第1次 1969年 8月 8일부터 8月 22일까지 15日間, 第2次 1969年 9月 10일부터 9月 25일까지 16日間의 兩次に 걸쳐 실시되었다.

美術課의 崔淳雨課長을 비롯하여 鄭良謨, 李准求, 姜友邦, 權寧弼, 李玉培, 崔完洙, 柳良玉 諸氏의 參加로 扶安郡 來蘇寺, 高敞郡 禪雲寺, 昇州郡 松廣寺와 仙巖寺가 中心이 되었다. 이번 踏查에서는 여러가지 佛幀을 中心으로 僧侶의 肖像畫와 木版畫, 一部建物 壁畫, 그리고 彩屏 等を 調査하였다.

◎ 高麗氏墓 發掘調査

美術課에서는 崔淳雨課長을 비롯하여 鄭良謨, 李准求, 姜友邦, 權寧弼, 金昌吉, 李玉培諸氏의 參加로 1969年 10月 7일부터 10月 31일까지 24日間에 걸쳐 慶州市 忠孝洞 金山齊附近의 石槨墓 2基, 土墳墓 5基, 護石을 둘러싼 石槨墓 3基等 10基의 古墳을 發掘調査하였으나 모두 盜掘로 파괴되어 副葬品은 거의 남겨진 것이 없었다.

◎ 康津郡 大口面 沙堂里 靑磁瓦窯址 發掘調査

美術課에서는 1966年, 1968 年 이어 1969年 11月 10일부터 12月 2일까지 22日間에 걸쳐 陶窯址의 作業場을 調査하였다. 崔淳雨課長을 비롯하여 鄭良謨, 李准求, 權寧弼, 金昌吉, 李玉培 諸氏가 參加한 이번 調査에서는 1968 年에 調査한 建物址 (A)의 東北쪽으로 세로이 낮은 築臺위에 세워진 建物址 (B)가 發見 調査되었다.

◎ 慶南 固城貝塚 發掘調査

考古課에서는 1969年 12月 10일부터 29일까지 20日間에 걸쳐 慶南 固城邑 東外里 丘陵上에 위치한 貝塚을 發掘 調査하였는데 金海 土器를 비롯하여 各種의 骨角器와 木炭片을 채취하였다. 이 調査에 參加者는 尹武炳學藝官을 비롯하여 張仁基, 韓炳三, 金鍾徹 諸氏였다.

安重根義士 遺筆 歸國

1969年 2月 21日 日本國 東京에서 李弘植, 黃壽永 兩教授와 東京藝大 中吉功氏의 주선으로 吉田氏 보관인 「恥惡衣惡食者不足與義」, 「五老峰爲筆青天一丈紙 三湘作碩池寫我腹中詩」의 2幅을 弘益學園 財團理事長 李道榮氏가 인수하였으며 東京 居住 張錫九氏 所藏 「一日不讀書口中生荊棘」 1幅은 東國大學校 博物館에 기증되었다. 이 3點은 각기 安重根義士가 庚戌年에 滿州 旅順 獄中에서 남긴 것이다.

靑瓷佛像 破片 發見

全南 康津郡 道岩面 龍穴寺址 隣近의 한 굴(窟)에서 1969年 5月 19日에 曹基正氏(全南 光州市 松岩洞 居住)에 의하여 靑瓷佛像 破片이 數點 발견되었다.

高敞에서 磨崖如來坐像 調査

1969年 5月 31日 全北 高敞郡 雅山面 兜率山 禪雲寺 뒷편에서 磨崖如來坐像이 李亨求氏에 의하여 조사되었다. 새로 발견 조사된 이 坐像은 高 約 12m, 座台 高 5m의 巨像으로서 高麗初期의 所作으로 推定되었다.

安東造塔洞 古墳 發掘調査

文化財管理局研究室에서는 秦弘燮教授지도하에 1969年 4月 19일부터 6月 8일까지 約 7週間に 걸쳐 造塔洞 甬甬골所在 古墳 1基와 시내미골所在 古墳 2基의 發掘調査가 進行되었다.

그 중 甬甬골所在 古墳은 底經 12m, 高 4m의 封土가 남아 있었으나 西麓에 盜掘孔이 있었다. 內部는 丁字形을 이루는 2個의 石室이 있었다. 出土遺物은 B室은 盜掘되었으나 A室은 完全하여 頭部측 東壁에서 115cm 거리까지 集中的으로 土器 21, 高杯 34等 完好한 土器가 出土되었고 金銅鞍具帶輪 2, 金銅杏葉 5, 金銅雲珠 6, 鐵製 鎧子 2, 鐵製 刀子 2, 金製 瓔珞付귀거리 1雙, 金銅冠片 약간등이 발견되었다.

萬福寺址 5層石塔 調査

萬福寺址 5層石塔의 解體修理作業은 1969年 2月 下旬에 請負業者 趙元載氏에 의하여 監督官 立會없이 施行된바 그 再調査가 1969年 6月 13日 李弘植, 趙明基, 秦弘燮等 文化財委員과 金周泰專門委員 立會下에 進行되었던 바 그 結果는 다음과 같다.

1. 初層屋身 上面에 1段의 턱이 있는 方形 舍利孔을 마련하고 턱에 맞도록 表裏가 磨研된 花崗石 蓋石을 덮어 密閉하는 裝置가 되어 있었다.
2. 屋身 上面에서 약간 위로 도드라진 舍利孔 蓋石에 맞도록 初層 屋蓋石 裏面에 홈이 파져 있었다.
3. 舍利裝置의 主體는 이미 盜取되었었다.
4. 舍利裝置는 舍利孔 蓋石의 南쪽을 파괴하고 盜取한듯 하나 蓋石의 破壞된 斷面 또는 첫번 解體 當時의 寫眞 등으로 보아 극히 최근에 있었던 일로 짐작되었다.
5. 金銅片, 유리小玉, 香片等 殘餘遺物은 分類하여 包裝 封印한후 南原郡廳에 보관하였으며 南原郡과 文化財管理局으로 하여금 盜難 搜查를 依頼하도록 하였다.
6. 再解體된 同 石塔은 初層 屋蓋石까지만 復原하고 搜查에 대비하도록 하였다.

道岬寺傳來 高麗寫經의 還國

韓末에 이르기까지 全南 靈岩郡 月出山 道岬寺에 전래하던 洪武癸丑年(1373 A.D.) 刊記가 있는 銀泥法華經 全 7冊이 1969年 3月初 日本國 東京에서 還國하였다. 이것은 오랫동안 東京居住 張錫九氏가 소장하고 있던 것으로서 2월에 渡日한 黃壽永教授의 주선으로 교포인 金大鉉氏가 政府에 기증한 것이다. 國內 寺院이나 民間에 이같은 高麗寫經의 完秩이 거의 絶無함에 비추어 그 價値가 매우 크다. 文化財委員會에서는 이 寫經을 國寶로 議決한 바 있었다. 그리하여 1910年 日人 關野貞氏가 同寺에서 注目한 아래 行方을 모르다가 귀국하게 된 것이다.

大典寺出土 金銅佛 압수

慶北 靑松郡 大典寺 境內에서 1968年 3월에 出土된 金銅佛 12軀 가운데 4軀를 同寺 金基祥住持가 流出 賣却하던 중 1969年 3月 20日 誕生佛과 金銅如來立像 2點이 서울市警에 압수되었다.

月城芳來里古墳 發掘調査 完了

京釜間 高速道路 大邱 慶州區間이 月城郡 西面 芳來里를 통과하게 되어 數百基가 密集한 古墳群의 一部의 파괴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따라서 文化財管理局에서는 李弘植, 秦弘燮 兩教授지도하에 1968年 12月 11일부터 1969年 3月 17일에 걸쳐 67基의 古墳을 發掘整理하였다. 이들 古墳은 모두 新羅時代의 것이었는데 규모가 작고 副葬品도 빈약한 편이었으나 그중 주목되는 몇가지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夫婦葬으로 보이는 小石室안에 지붕을 이듯이 암기와를 깔아서 두개의 屍床을 마련하고 그 兩側에는 숫기와로 動搖를 막는 한편 兩屍床 境界에는 蓮華紋 숫막새를 한줄 깔았다.

둘째, 副槨이 딸린 石室이 상당한 수가 발견되었다.

셋째, 槨底에 川石을 깔고 다시 粘板岩을 깔 例가 있었다.

넷째, 石室 옆에 小形 合口甕棺이 딸린 墓가 있었다.

다섯째, 副葬品中 有臺 方形 角杯臺의 異型土器 一點이 발견되었다.

牙山 顯忠祠 完工

忠南 牙山郡에 위치한 顯忠祠를 聖域化한 이래 1668年 8월부터 工事費 4억여원을 들여 착공한 환경정리 및 重建工事が 1969年 4月 28日 李忠武公의 誕生記念日을 맞이하여 준공되었다.

新羅三山學術調査團 第3次·第4次 調査

第3次 1969年 5月 1일부터 10日間 全委員의 참가로 실시되었다. 이번 조사의 목적지는 月城郡 斷石山과 慶北

淸道地區였는데當初부터 調査團을 2個班으로 편성하여 出發했다.

斷石山の 調査班은 黃壽永 洪思俊委員을 비롯 申榮勳, 金東賢 兩氏가 現場에 머무르면서 上人岩 神仙寺의 石窟寺院址의 磨崖佛 10軀 및 諸遺構를 實測拓本하는 작업이 進行되고 한편 이곳이 金庚信將軍을 中心한 花郎大道場이었음을 확인하는 성과를 올렸다.

淸道地區는 秦弘燮, 李基白, 金英夏, 鄭永鎬委員과 石宙善, 尹容鎮, 金和英, 李康七, 許善道諸氏로 構成 進行되었는바 途中에는 團長 金庠基博士가 참가하였다. 一行은 上人岩을 中心한 斷石山과 富山城 일대의 조사를 2日間 실시하였으며 아울러 永川菁堤碑를 再調査하여 새로이 銘文을 判讀하였다. 淸道는 新羅三山の 하나인 穴禮가 위치한 곳이다 하여 着手하게 된 것인데 그 調査內容은 다음과 같다.

吠城 餅寺, 琵琶山 湧泉寺 琵琶山頂의 逸名寺址 水月洞의 庵址(朝鮮時代 後期の 石鍾型浮屠·建物址), 樂城洞 陶窯址(靑磁片이 모두 素紋으로 發色은 純靑), 長基洞 石城, 豊角面 德陽里 逸名寺址(3層石塔 1基), 華陽面 合川洞 逸名寺址(羅代의 石造如來像 立像1軀·羅代의 紋樣瓦가 一帶에 散亂), 梅田面 長淵里 逸名寺址(3層의 東西雙塔一西塔 倒壞, 部材 完存·石佛·石燈材), 伊西面의 土城址, 梅田面 令山洞의 千佛塔(再建), 錦川面 珀谷洞의 塔像.

第4次 10月 24일부터 11月 2日까지 10日間에 걸쳐 慶州市 忠孝洞에 위치한 金山齊에서 「松花房」의 추정을 위하여 東·北 耕作地와 山麓 南쪽을 試掘하였는바 建物址가 發見되었고 한편 羅代의 瓦當도 多數 出土되어 注目되었다. 이 調査에는 團長 金庠基博士를 비롯하여 金英夏, 秦弘燮, 鄭永鎬, 洪思俊, 黃壽永委員과 尹容鎮, 申榮勳, 金東賢 諸調査員이 參加하였다.

海印寺 大藏經 調査

文化財管理局에서는 1千萬원의 예산으로 1969年과 1970年에 걸쳐 海印寺에 保管中인 八萬大藏經의 現況을 調査하고 科學的인 保存研究에 着手하기로 하였다.

智理山과 佛國寺에 公園開發

1969年 7月 2日 建設部는 1970年度에 總 5億원의 예산을 投入하여 智理山과 慶州 佛國寺 一帶에 2個의 公園을 集中開發한다고 發表하였다.

文化財管理 示範地區 設置

1969年 7月 12日에 文化公報部에서는 文化財의 多目的 開發을 위하여 文化財管理 示範地區를 設置하기로 하였는데 主要文化財가 位置한 곳으로 水原, 江陵, 淸州, 俗離山, 公州, 金堤, 全州, 海南, 慶州, 晉州, 濟州等 11個地區이다.

高麗銅鐘 出土

全羅南道 麗川郡 雙鳳面 麗川里 안골部落 개간지에서 1969年 8月 1日에 이 마을에 사는 申洪圭氏에 의하여 在銘 高麗銅鐘 1口가 出土되었다. 높이 40cm, 口徑 18cm의 小鐘이나 造成年代가 뚜렷하고 40餘字의 陰刻銘이 있어 注目되는데 그 全文은 다음과 같다.

「聖壽長天 長生寺金鐘重 五十斤 棟樑寺主金藏漢 庚戌戌年正月 春元施納十六代 大安二年十二月日」

李太祖 潛邸時 戶籍 發見

8月初旬 藏書閣에서 朝鮮時代 李成桂 太祖의 潛邸時 戶籍이 發見되어 李弘植委員에게 調査를 위촉하였는데 洪武 23年(1390 A.D.)에 作成된 두루마리로서 폭 56cm, 길이 38.6cm이다.

韓國美術史學會 一般繪畫 調査

文化公報部에서는 文化遺產 學術調査의 일환으로 韓國美術史學會에 一般繪畫 調査費로 88萬원을 지급하여 1969

年 8月 23일부터 9月 1일까지 10日間 調査하였다. 今般 調査에서는 全南大學校 博物館에서는 謙齋의 山水圖와 小痴의 山水圖 等 約 100餘點의 繪畫를 새로이 調査하였다. 參加者는 國立博物館 崔淳雨美術課長을 비롯하여 鄭良謨, 李准求, 姜友邦, 權寧弼, 崔完洙, 李玉培, 柳良玉 諸氏였다고 한다.

서울市 文化財委員會 鄉土文化財 指定

서울特別市의 文化財委員會는 1969年 9月 19日 처음으로 서울市 鄉土文化財 3點을 指定하였다.

第 1號 獎忠壇碑...中區 獎忠洞 1街 迎賓館內 所在. 1969年 7月 4日 迎賓館앞 숲속에서 발견한 것인데 閔妃暗殺當時 殉死한 宮內大臣 李耕植과 侍衛大將 洪啓薰을 위로하여 光武 4年에 建立한 石碑이다.

第 2號 鳳凰閣...城北區 牛耳洞 所在. 義菴 孫秉熙先生이 1926年에 세운 韓屋으로 당시 天道敎의 指導者를 양성하던 곳이다.

第 3號 舊러시아洋館...西大門區 貞洞 所在. 高宗 27年 러시아公使館 建物로 세운것인데 이것은 우리나라에 洋式建築物이 들어온 最初의 것으로서 그 意義가 있다.

東萊에서 伽倻時代遺蹟 發見

1969年 9月 22日 釜山市 東萊區 福山洞 47의 1 東萊女高 뒷편 古墳群에서 垜地 整理中이던 이 마을의 吳任德氏가 伽倻時代의 橫穴式石室(7×2×2m)을 확인하고 土器, 鐵斧, 구슬 및 장신구等 一括遺物을 收拾하였다.

舊皇室遺物 調査整理

文化財管理局은 1969年 9月 30日 五大宮 舊皇室遺物 調査整理事業을 끝내고 모두 12萬點에 達한다고 발표하였다.

遺物은 宮中과 一般으로 大別하고 書畫, 磁器, 木竹草紙, 祭器, 玉石, 骨角, 染織, 武具, 證牌, 樂器, 御寶冊, 懸板, 家具, 輿車, 文籍, 考古品, 服飾, 金屬品, 民俗品 等 19種으로 分類 整理하였는데 그중 重要品目別 內容은 다음과 같다.(數字는 遺物의 點數임)

一級品...文籍 1(李太祖戶籍原本), 樂器 224

二級品...御寶冊 627, 染織 22, 武具 2, 樂器 3

三級品...文籍 87, 072(藏書閣 71, 189포함), 祭器 14, 483, 書畫 1, 640, 玉石 1, 989.

四級品(參考品)...祭器 785, 染織 626, 書畫 376, 木竹草紙 147.

利見臺址 發掘

文化財管理局에서는 利見臺 復原을 계획하고 그에 앞서 그 遺址의 把握을 위하여 1969年 11月 3일부터 11月 10日까지 8日間에 걸쳐 慶北 月城郡 陽北面 臺本國民學校 앞 大王岩이 마주 보이는 언덕 위에서 遺蹟發掘作業이 있었다. 이번 發掘은 당초에 李弘植教授(高大 博物館長)가 關與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梨大 博物館長 秦弘燮教授에게 委任되어 文化財管理局의 姜仁求, 池建吉, 金世玄, 洪재원 諸氏 參加下에 이루어졌다.

遺址는 約 100坪의 面積 一帶에 깔려 있으나 柱礎는 全失되었고 礎石의 基礎가 남아있을 뿐이다. 그것도 西쪽으로 갈수록 柱列이 매우 混亂되고 있다. 出土된 遺物은 2個의 朝鮮時代 蓮華紋 瓦當이 있을 뿐이다.

佛敎美術研究 國內專門家會議

1969年 11月 4日 유네스코會館에서 開催. 黃壽永, 崔淳雨, 鄭永鎬, 李浩官, 文公部文化財課長을 비롯하여 유네스코의 關係者가 合席하였는데 出版事業, 調査研究事業, 發掘事業 等を 案件으로 하여 討議하였고 이 內容은 11月 10일부터 5日間 「실론」의 「콤롬보」에서 열리는 國際會議에서 黃壽永教授가 報告토록 하였다.

望德寺址 發掘調査

文化財管理局에서는 1969年 11月 11일부터 11月 18日까지 8日間에 걸쳐 慶州市 拜盤里에 위치한 望德寺址에 대한 第 1次 發掘을 실시하였다. 이 發掘에는 梨大 博物館長 秦弘燮教授 指導下에 姜仁求, 池健吉, 金世玄, 洪재원

諸氏가 參加하였다. 發掘은 主로 東·西 塔址와 廻廊 位置의 探索에 集中하였다.

東塔址는 現存한 15個의 礎石으로 一面 三間의 方形建物임을 알았고 中心礎石 中央에는 一段의 層이 있는 方形 舍利孔이 마련되었음을 確認하였으며 基壇은 四方에 石階가 설치되어 있었다. 西塔址는 파괴가 더욱 심하여 礎石은 心礎만 남기고 全失되었다.

廻廊은 뚜렷한 遺址를 東塔 東쪽에서 찾을 수 있었는데 雜石으로 東쪽의 面을 고르게 맞춘 石列이 있고 그 안(西쪽)으로 柱礎 자리를 찾을 수 있다. 이 石列보다 約 3m 東쪽에 또 하나 石列이 앞서의 石列과 平行해서 南北 으로 뻗고 있었다.

佛國寺 發掘調査

佛國寺 境內 主要建物の 復原에 앞서 學術的인 考證資料를 얻기 爲하여 실시된 復原 建物址에 대한 發掘 및 實測調査가 1969年 8月 29日부터 着手되어 10月 31日에 끝났으며 이후 調査資料의 整理는 11月 14日에 完了되었다.

그동안 動員된 延人員은 調査員 280名, 雜夫 1,350名이었다. 調査要員은 金正基, 金仁鎬, 申榮勳, 金東賢 諸氏였고 助手는 崔夢龍, 徐正男, 朴志明, 朴宗錫, 朴英八 諸氏였다.

出土 遺物은 瓦, 磚類가 大部分이었는데 土器 및 陶磁器類와 鐵片도 약간 發見되었다.

新羅三山學術調査團 陵只塔 調査

1969年 11月 15日부터 11月 21日까지 1週日間에 걸쳐 실시하였다. 즉 同 調査團은 慶州市 狼山 西麓에 위치한 俗稱「陵只塔」의 모든 部材를 中心으로 周圍의 地域을 廣範圍하게 實測調査하였는데 參加者는 團長 金庠基博士를 비롯하여 金英夏, 秦弘燮, 洪思俊, 黃壽永, 鄭永鎬委員과 尹容鎭, 申榮勳, 金東賢 諸氏였다.

法住寺 捌相殿 上樑式

그동안 解體 復原工事中이던 俗離山 法住寺 捌相殿의 上樑式이 1969年 5月 21日에 中央指導委員인 崔淳雨文化財委員 및 法住寺 住持 立會下에 거행되었다.

高麗時代 龜趺 및 螭首 發見

江原道 原城郡 文幕面 碑頭里 翁바위 골에서 1969年 5月 25日 黃桂益 原州文化院長에 의하여 埋沒되어 있던 龜趺와 螭首가 발견 高麗下代의 造成으로 推定되었다.

無量寺 極樂殿 補修工事

無量寺 極樂殿의 解體修理工事는 몇차례의 計劃變更과 그에 따른 迂餘曲折을 겪어 1969년 5월에 第4次 工事が 進行되었다. 현재 架構는 완전히 解體되었고 部材實測이 있을 예정이다.

朝鮮時代 美人圖 發見

農業協同組合 中央會 吳榮錫氏 所藏의 朝鮮時代 美人圖가 1969年 9月 下旬에 새로이 알려졌는데 길이 1.2m 폭 66cm의 紙本淡彩의 簇子이다. 「戊戌秋 松水居士畫」라 墨書되어 있는데 葆華閣 所藏의 蕙園 美人圖의 影響을 받은 19世紀 初葉 作品으로 추정되고 있다.

懷墓 移葬

朝鮮時代 燕山君의 生母 尹氏(成宗妃)의 무덤인 懷墓를 1969年 10月 25日에 原位置인 서울特別市 東大門區 回基洞 慶熙大學校 構內에서 西大門區의 西三陵으로 移葬하였다. 3m 높이의 封土를 가졌던 이 懷墓는 3m두께의 강화다짐 속에 二重木棺을 使用했는데 副葬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4. 研究發表

- ◎ 黃壽永：「近年에 發見된 金石文 資料」歷史學會 第130回 月例研究發表(1969年 3月 29日)
- ◎ 孫寶基：「石莊里 舊石器發掘 中間報告」韓國史研究會 月例研究後表(1969年 5月 17日)
- ◎ 第12回 全國歷史學大會 …東洋史學會 主管으로 1969年 5月 30日(金)과 31日(土) 兩日間에 걸쳐 慶熙大學校 中央圖書館에서 開催되었는데 考古學과 美術史部門의 發表는 다음과 같다.
文明大：景德王代의 阿彌陀 造成問題
金和英：韓國佛像臺座 樣式的 變遷(金銅佛을 中心으로)
金基白：永川 菩提碑에 대하여
金基雄：新羅古墳의 編年에 대하여(積石木槨墳을 中心으로)
鄭永鎬：新羅 獅子山 興寧寺址 研究
鄭良謨：初期 青瓷象嵌大接에 나타난 寶相唐草文의 變遷
黃壽永：新羅 敏哀大王 石塔記
- ◎ 鄭永鎬：「永同 寧國寺遺蹟 調查報告」, 歷史學會 第132回 月例研究發表(1969年 6月 28日)
- ◎ 黃壽永：「韓國의 半跏思惟像研究」, 日韓親和會 主催 韓日古代文化 講演會, 朝日新聞社講堂, 1969年 10月 9日
- ◎ 小山富士夫：「日本에 있는 韓國陶磁器에 관하여」YWCA聯合會 講堂 1969年 12月 6日
- ◎ 林屋晴三：「所謂 高麗茶碗에 대하여」, 國立博物館 講堂 1969年 12月 11日

全國 大學博物館協會 會員校(가나다 順)

建國大學校博物館	慶北大學校博物館
慶熙大學校博物館	高麗大學校博物館
檀國大學校博物館	東國大學校博物館
東亞大學校博物館	釜山大學校博物館
서울大學校博物館	成均館大學校博物館
首都女師大博物館	淑明女子大學校博物館
崇實大學博物館	延世大學校博物館
嶺南大學校博物館	圓光大學博物館
陸士軍事博物館	梨花女子大學校博物館
全南大學校博物館	全北大學校博物館
忠南大學校博物館	弘益大學校博物館